가정예배

03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경 누가복음 10:25-37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은혜의 찬양 22장)

1

1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2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찬송가 218장)

2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말씀 읽기 누가복음 10:25-37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본문 배경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26절)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27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때 세 부류의 사람(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잘 알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써 가며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37절)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의 범위를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율법이 진실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관찰

1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나요?(25절)

답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해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독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질문의 목적이 앎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도 훈련 세미나에서 시험을 백 점 맞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이며, 기도와 관련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 훈련 숙제는 완벽한데 제자로서의 삶은 없습니다. 공허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먼저 가꾸어야 합니다.

2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37절)

답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역으로 질문하셔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은 서로 다른데 답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를 행하라"(28절). "이와 같이 하라"(37절). 앎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없는 앎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앎이 없는 삶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를 좁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장 두려운 것이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자신이,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역시 말씀을 알지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

1 지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실천한 경험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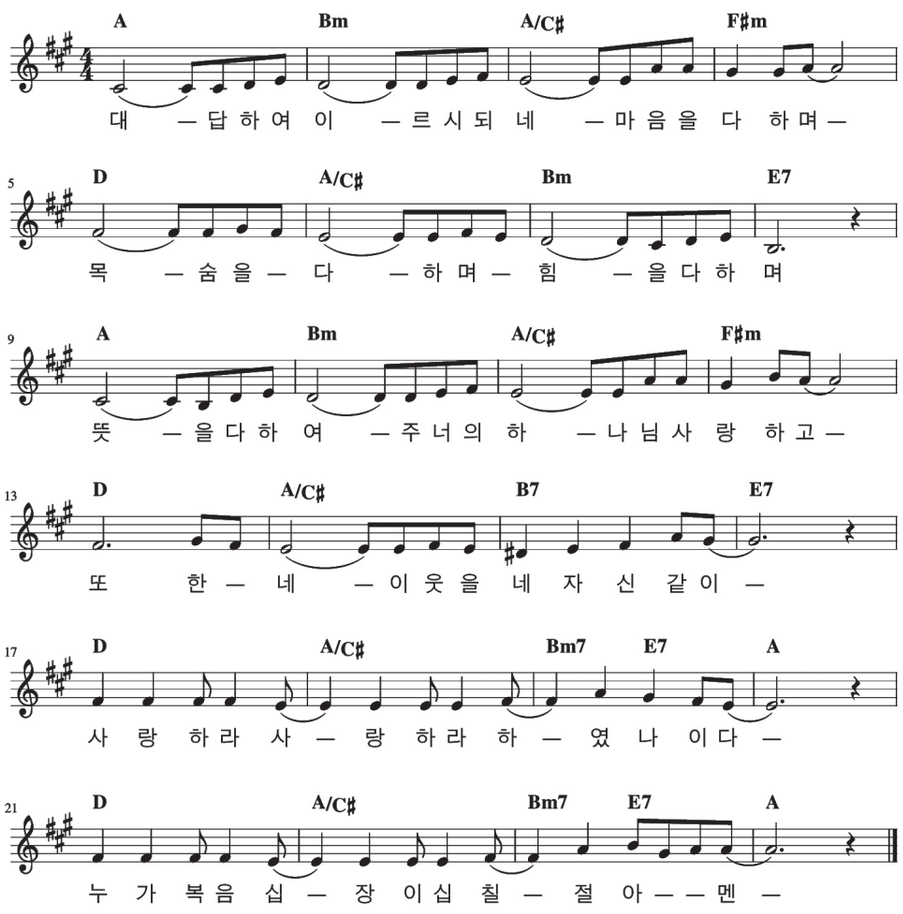
말씀 암송

11-3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27절

♩ = 130

작곡 유라혜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소서.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